

DESIGN

2016/7 www.monthlydesign.co.kr

457

Overseas Designer

디자인 오타쿠가 이끄는
몇 년째 가장 핫한 회사, 덴도

Designer

한국 영화의 미학을 진보시킨 디자이너
류성희

Focus

<헤더워 스튜디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상>전 여는
토머스 헤더워

Zoom In

현대카드가 만든 놀이터와 실험실
바이닐엔플라стик, 스토리지



이탈리아 디자인 스튜디오
도소피오리토(Dossoforito)가 세밀한
식물 관찰을 위해 돋보기를 허분에 부착한
'피토피일러(The Phytophiler)'.

Special Feature

도시 자연의 몸집을 키우는 식물 디자인

Plant Design For Urban Green



식물로 영감을 키워낸 디자인

식물은 뿌리, 줄기, 잎과 가지 어느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영감의 집합체라 외치는 디자이너들을 소개한다. 이들은 뿌리로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이끼 라디오로 아침을 깨우며 꽃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기상천외한 화분을 만들기도 한다. 모든 게 식물을 위해, 식물로부터, 식물에 의해 나온 디자인이다. 글: 백가경 객원 기자



1



2

식물과의 식상한 관계를 청산한

피토피레르

이탈리아의 디자인 스튜디오 도소피오리토 (Dossofiorito)는 주로 사람과 사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해왔다. 그중 2014년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선보인 화분 피토피레르(The Phytophiler)는 자연과 사람의 교감을 이끌어내며 전 세계 디자이너와 큐레이터에게 주목을 받았다. 피토피레르는 흙으로 구운 토기에 다양한 도구를 부착한 제품으로 돋보이는 침엽 식물의 작은 바늘까지 확대해 보여주며 병풍처럼 펼쳐지는 접이식 거울은 갖 피어난 꽃잎의 싱싱함을 배가시킨다. 도소피오리토라는 스튜디오의 이름은 버려진 낡은 네온사인에서 따왔으며 이는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전달한다는 이들의 목표를 나타낸다. www.dossofiorito.com



3

- 1 피토피레르 프로젝트 중 잔디를 함께 재배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화분.
- 2 접이식 거울을 병풍처럼 부착하여 꽃을 더 화려하게 표현해주는 화분.
- 3 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울을 부착한 화분.